



# 하상주보

2021년 4월 3일 (나해)

## 파스카 성야

### 제1부 성야의 장엄한 시작, 빛의 예식

파스카 초 점화, 파스카 찬송

### 제2부 말씀 전례

**제1독서** | 창세 1,1-2,2 (또는 1,1,26-31ㄱ)

**화답송** | 시편 104(103),1-2ㄱ,5-6,10과  
12,13-14ㄴ,24와 35ㄷ(◎ 30 참조)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은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존엄과 영화를 입으시고,  
    광채를 겉옷처럼 두르셨나이다. ◎
- 땅을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시니,  
    영영 세세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바다로 땅을 옷처럼 덮으시니,  
    산 위까지 물이 가득 찼나이다. ◎
- 골짜기마다 샘물 터뜨리시니,  
    산과 산굽이굽이 흘러내려,  
    하늘의 새들은 그 곁에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나이다. ◎
- 당신 거처에서 산에도 물 대시니,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십니다.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나물 돋게 하시나이다. ◎
-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그 모든 것 당신 슬기로 이루시니,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십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제3독서** | 탈출 14,15-15,1ㄱ

**화답송** | 탈출 15,1ㄷ ㄷㄱ-2,3-4,5-6,17-18  
(◎ 1ㄷ ㄷ)

-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네.

-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군셈.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조상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
-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뛰어난 장수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
  -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당신 오른손이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니, 주님,  
    당신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나이다. ◎
  - 당신은 그들을 데려오시어,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주님, 그 산은  
    당신 거처로 삼으신 곳, 주님 손수 세우신  
    성소이옵니다. 주님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나이다. ◎

**제5독서** | 이사 55,1-11

**화답송** | 이사 12,2-3,4ㄴ ㄷ ㄷ,5-6(◎ 3)

-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군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려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7독서** | 예제 36,16-17ㄱ,18-28

**화답송** | 시편 42(41),3,5ㄱ ㄴ ㄷ ㄷ;  
43(42),3,4 (◎ 42 [41], 2)

-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뵈오리이까? ◎
- 영광의 초막, 하느님의 집까지,  
    환호와 찬미 소리 드높은 가운데,  
    축제의 무리와 행진하였나이다. ◎
-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산,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
-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오리다.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파 타며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서간** | 로마 6,3-11

**화답송** | 시편 118(117),1-2,16-17,22-23

-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복음** | 마르 16,1-7

**제3부 세례 전례** | 세례수 축복,  
세례 서약 갱신

**제4부 성찬 전례**

##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부활의 은총을 기념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은 어둠을 물리쳤고,  
그 빛은 우리에게 이제와 항상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길고도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낸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고,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부활의 희망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강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수난과 죽음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이 성스러운 시기를  
여러분 모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해에 우리 삶에 닥친 팬데믹과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성인들과 천사들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에 저는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분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에 대해 강론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가 제게 완덕으로 이끄는 길을 물어본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에 겸손함이 앞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죽음을 물리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힘을 갖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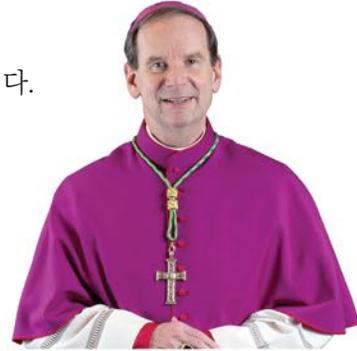
부활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얻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데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죽음과 부활은 조건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무한한 자비에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행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을 그리스도의 그것과 하나되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부활의 은총을 기념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세상의 빛이신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알링턴 교구  
마이클 버릿지 주교

그리스도 안에서

*Michael F. Burridge*  
알링턴 교구 마이클 버릿지 주교



We celebrate the blessings of Easter  
with a **humble** and **grateful heart!**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Our Lord is risen! The Light of the world has conquered the darkness and provided for us the opportunity for life with him, now and forever. After a long, challenging year, we now joyfully celebrate the Lord's Resurrection and are renewed and strengthened by the hope he imparts.

I pray that each of you is able to embrace fully this sacred season of Our Lord's victory over suffering and death. Despite the pandemic and the other difficulties brought into our lives over the past year, we have reason to rejoice! Our Lord loves us and, in faithful obedience to the Father, offered the ultimate sacrifice on our behalf, so that we might have eternal life with him in heaven with the saints and the angels.

At the start of Lent, on Ash Wednesday, I preached about a fundamental virtue for those pursu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God: humility. St. Augustine famously wrote, "If you should ask me what are the ways of God, I would tell you that the first is humility, the second is humility, and the third is humility. Not that there are no other precepts to give, but if humility does not precede all that we do, our efforts are fruitless." God alone has the power to conquer death and give new life in him. Our joy should be rooted in humbly acknowledging that the salvation won by Christ is freely offered to us. Death and resurrection are gifts freely offered, and we must rely upon his infinite mercy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In our lives, we experience happiness as well as sorrow, and if we unite our joys and sufferings to Christ's, he will lead us to share in his victory and the glory of his Resurrection. Thus, may we celebrate the blessings of Easter with a humble and grateful heart!

May the peace of the risen Lord, the Light of the world, be with you in this Easter season and always.

Sincerely in Christ,

Most Reverend Michael F. Burbidge  
Bishop of Arlington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그리스도의 부활〉, 노엘 쿠퍼펠, 1700년, 렌 미술 박물관, 프랑스

-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2독서] ..... 콜로 3,1-4(또는 1코린 5,6ㄴ-8)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게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음] ..... 요한 20,1-9 (또는 마르 16,1-7)

[제1독서] ..... 사도 10,34-37ㄴ-43

[화답송] ..... 시편 118(117),1-2,16-17,22-23

(◎ 24)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19)



천주교 원주교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찬미예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극성을 멈추지 않았는데, 주님의 부활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40일보다 훨씬 길었다는 느낌입니다.  
전자 현미경 없이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미물로 인해 온 세상이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카톡에 뜬 글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을까?  
얼마나 화가 나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얼마나 화가 나면 더러운 검은 손을 깨끗이 씻으라 했을까?

이런 글도 있습니다.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시다.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시다. 비명을 질렀지만 무시했습시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시다. 나는 처벌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시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시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이 세상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하라고. 피조물의 영장인 인간은 지도자답게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생각하라고. 다른 사람들의 호소를 들으라고. 자연의 비명을 들으라고.  
그리고 서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라고.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뜻 아닐까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장차 있을 우리들의 부활의 확증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을 기억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1코린 15,13-14)

우리들의 부활은 다시 죽어야 하는 소생과 다릅니다.

우리들의 부활은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나는 꽃과도 다릅니다.

그 부활은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1코린 2,9)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한 우리들의 삶에는 마스크도 없을 것이고, 거리 두기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장엄한 부활의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2021년 부활 대축일에

천주교 원주교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청소년 미디어팀 특별한 부활 달걀 드려요

+ 부활절의 기도

- 이해인 수녀



돌무덤에 갇힌 침묵이  
큰 빛으로 일어나  
눈부신 봄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용서가 미움을 이겼습니다

ALLELUIA!!



슬픔과 절망으로  
웃음 잃은 이들에게  
기쁨으로 오시는 분  
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평화로 오시는 분

산 위에 바다 위에 도시 위에  
눈물 가득한 우리 영혼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빛나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여  
당신은 왜 그리 더디 오십니까?

오오, 주님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제는 살아야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수난의 마지막 저녁처럼  
부활의 첫 새벽처럼 살아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 죽어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해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어둠 속에 누워서  
밝은 빛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왜 자주 숨어 계십니까?  
좀더 일찍 알아 뵙지 못했음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부활하신 세상에서  
이제 거짓 사랑은 끝난 것입니다  
삶을 지치게 하는 교만과 불신이 사라지고  
겸손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기심의 무덤을 빠져나와  
어디든지 희망으로 달려가는  
하늘빛 바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죽음을 이긴 사랑 하나로  
새롭게 듣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행동하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님이 오시는 들길을 웃으며 달려가는  
연초록 봄바람으로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오늘

지난 3월 28일 5시 성지주일 미사가 끝난 후 청소년 미디어 팀, 엠마우스는 특별한 부활절 달걀을 만들었다. 청소년 미디어팀은 이태섭 보좌신부님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 부활을 맞이하는 신자들에게 선물을 전할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였다.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진 틀에 초콜릿과 말솜사탕을 넣어 만든 특별한 선물을 부활 성야 미사 후 나누어 드린다. 미디어팀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 주소도 적혀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On May 28<sup>th</sup>, the Youth Media team, Emmaus, gathered after the Palm Sunday mass to make Easter eggs for the congregation. With Fr. Lee, the Youth Media team worked together until late to share the joy of Easter with everyone during this hard time. The cross-shaped Easter eggs will be distributed after the Easter Vigil Mass. The media team also asked the congregation for more attention to the Instagram and Youtube channel that the team is managing to reach out to more youth and young adults of our church.



 SPC Emmaus(@spc\_emmaus)  
 SPC Emmaus



(바오로딸 콘텐츠)

HAPPY EASTER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어둠의 세력을 뚫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공동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성 정 바오로 성당 신부, 수녀, 회장단 -



**1 감사합니다**

- 부활 대축일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매일미사 신설**

- 4월부터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6시에 미사가 봉헌됩니다.

**3 주일미사 참례 안내**

- 주일미사에 참례하실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례 인원은 방역 지침에 따라 150명으로 제한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참여 현황**

-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계층 등을 위한 알링턴 교구의 사업인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에 신자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액수라도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3월 25일 현재

	세대수	후원 세대	참여율
St.Paul Chung	2,366	351(+26)	22%
알링턴 교구	150,292	24,704	22%

**5 원주카리타스 본당 신자 및 지역주민 돕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당 및 지역주민을 돕는 이번 행사에 찬조해 주실 분들은 사무실이나 원주카리타스 회장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 일시: 4월 11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오후 2시 ~ 4시
- 장소: 본당 주차장(드라이브 스루)
- 품목: 쌀, 라면, 과일, 야채 등 생필품

**감사합니다**

**원주카리타스 자선 행사에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순용, 윤경수, 변도수, 유제운, 남광우, 이봉기, 남상준, 김춘매, 노시창, 최창희, 이순애, 최평란, 박성태, 이창수, 김남식, 고경애, 김줄리아, 하상희, 안나희

**6 미사 시작 전 25주년 기도문을 바칩니다**

-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일치를 지향하며 4월부터 미사 전에 본당 승격 25주년 기도문을 바칩니다.
- 기도문은 주보대에 있습니다.

**7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추억의 사진 공모전**

-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집 발간을 위해 25년 추억의 사진들을 기념집에 담고자 하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 성당에서 찍은 사진들, 성당 행사 활동 사진, 성당 관련 사진 등
- 접수 기간: 4월 1일 - 5월 30일
- 참가 대상: 성 정 바오로 성당 관련 사진을 간직한 사람은 누구나
- 접수 방법: 이메일(한상준 프란치스코 sjh5691@gmail.com), 응모함, 성당 우편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웹주보에 실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본당 설문조사**

- 설문지는 본당 설문지 함이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세요.

**9 성 요셉의 해**

- 성 요셉의 해(2020년 12월 8일 - 2021년 12월 8일)를 맞아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를 드리며 특별 대사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 요셉의 해 안내 및 특별 대사의 은총 보기:  
<https://cbck.or.kr/Notice/20210029?gb=K1200>  
<https://cbck.or.kr/Notice/20210030?page=3&gb=K1200>

**10 성당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 미사에 참석할 때나 성당에 오실 때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1년 하상 한국학교 여름학기 등록 (웹주보 참조)**

- 입학 대상: Rising K ~ Rising 12<sup>th</sup>
- 학사 일정: 2021년 6월 21일(월) ~ 7월 29일(목) 6주 (월 ~ 목, 9:30am ~ 12:30pm)
- 등록: 선착순 80명(First based up to 80 students)
- 학비: 등록비(\$50, 환불 안됨)가 포함된 비용  
첫째 자녀: \$400, 둘째 자녀: \$380, 셋째 자녀: \$360
- 온라인 접수:  
<https://forms.gle/KtTe6QRocM6FE3Xu5>
- 문의: 교감 (571) 217-8941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주님 부활 대축일 : 스바 1-하까 2, 목시 18-19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3월 28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주일헌금	\$ 3,564.00
교무금	\$ 12,650.00
교무금(신용카드)	\$ 1,240.00
특별헌금	\$ 670.00
온라인봉헌	\$ 3,960.00
<b>합계</b>	<b>\$ 22,084.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4월 7일(수) 오전 6:15-6:45  
4월 10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부활 대축일 미사 강론
- CBCK 미디어교리 - 예수 그리스도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4월 8일(목) 오후 5:00-6:00  
4월 9일(금) 저녁 8:00-9:00  
4월 11일(일) 오전 6:00-7:00

1. CPBC 뉴스
2. 미니 순례 : 그리스 - 사도 바오로의 발걸음
3. 나의 하느님 : 작가, 김세해 잔다르크

**감사합니다**

부활 제대 꽃 봉헌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1년 하상 한국학교 여름학기 등록 안내



1. 입학대상 : Rising K ~ Rising 12<sup>th</sup>
2. 학사 일정 : 2021년 6월 21일(월) ~ 7월 29일(목) 6주  
(월 ~ 목, 9:30am ~ 12:30pm)  
\*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반별 수업 시간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3. 학비 : 등록비(\$50, 환불 안됨)가 포함된 비용  
첫째 자녀: \$400, 둘째 자녀: \$380, 셋째 자녀: \$360  
**<등록 취소시 환불 규정>**
  - 1) 수업 시작 일주 전 취소 : 등록비 \$50 제외하고 환불
  - 2) 수업 시작 후 1주까지 취소 : 등록금의 50% 환불 (등록비 \$50 제외 후)
  - 3) 수업 시작 후 1주 이후 취소 : 환불 불가
4. 등록 : 선착순 80명(First based up to 80 students)  
학비 또는 등록비 \$50과 함께 아래 방법으로 접수
  - 온라인 접수: <https://forms.gle/KtTe6QRocM6FE3Xu5>
  - 학비 또는 등록비 보내실 곳 :  
Mail to : **Hasang Korean School**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  
Pay to Order : Hasang Korean School)
5. 반편성 시험 : 등록 후 반편성 시험 안내문을보내드립니다.
6. 사랑과 열정으로 **한국어를 가르치실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온라인으로 수업 가능하신 분)
7. 문의 : 교감 571-217-8941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로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소아전문 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챌탈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커머셜 김준 부동산</b>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원 통증 · 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뉴욕라이프</b>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제니스김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박정훈(요한) 치과</b>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워싱턴 노인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b>경희 바울 한의원</b>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로로) 703-907-9299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b>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재무설계</b>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b>DK 건강 보험</b> 1956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b>GCOOP 케어셀라</b>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갈라라) 703-732-3836	<b>광고 접수중!</b>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안내

주일미사 생중계

매 주일 오전 10시 미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난 주일 미사도 본당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www.stpaulchung.org](http://www.stpaulchung.org)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SNS



미사 시간 (MASS SCHEDULE)

※ 매 미사는 150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일미사	· 08:00 AM	평일미사	월요일	06:00 AM
	· 10:00 AM		화요일	07:30 PM
	· 05:00 PM		수요일	11:00 AM
			목요일	06:00 AM
			금요일	07:30 PM
			토요일	06:00 AM/05:00 PM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http://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mailto: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 사도)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